

깊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전시물들

— 평양문화전시관을 찾아서 —

유구한 력사와 문화, 뛰어난 절승경관을 자랑하는 평양에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평양문화전시관이 자리잡고 있다.

공화국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곳 전시관을 한번 돌아보면 세상에 자랑높은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에 대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붙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과 비약적인 발전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평양문화전시관의 드넓은 홀에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과 각종 분야의 도서들, 《조선》, 《금수강산》 등 공화국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화보, 화첩들이 전시되어 있다.

산 좋고 물 맑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인민들의 다양한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미술작품들은 참관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뛰어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조각들은 보는 사람들을 신비한 예술의 경지로 이끌

어간다.

이곳 전시관의 최성희관장은 지난 시기 전시관을 찾은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사진들과 화보, 화첩, 다매체전집물들을 통하여 공화국의 발전면모를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한데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유럽대표단의 한 성원도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진리는 평양문화전시관에 한번이라도 와보면 누구나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피력하였다고 한다.

평양문화전시관은 다채로운 문화행사공간으로도 이용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공화국의 품에서 삶을 빛내인 문학예술인들

음악지휘자 허재복

이역땅에서 류량민의 자손으로 태어난 허재복은 1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음악공원에서 바이올린독주를 하여 큰절을 받은 음악신동이었다.

하지만 나라없는 실음을 한탄하며 구슬퍼 라던 바이올린의 선율이 관중도 울고 자기자신도 울던 암흑의 세월 음악에 대한 그의 꿈은 실현될수 없었다.

나라가 해방되어서야 그는 평양에 각 창립된 국립음악학교(당시)에 편입하여 마음껏 공부할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는 전선으로 탄원하여 내무성형주단(당시) 연주자, 지휘자로 활동하던중 국가적조치에 따라 전선에서 소환되어 어느나라의 음악대학 편입학위과에서 유학하게 되었다.

류학기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전련맹지휘자공클에서 1등을 함으로써 온 유럽을 흥분시켰다.

전후 조국으로 돌아온 허재복은 국립교향악단 지휘자

로 두각을 나타냈다.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7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서 금메달을 받은 무반주합창 《법성포 배노래》는 그의 정열적이고 재치있는 지휘능력을 보여준 단편적인 실례이다.

차밀하고 원만한 형상조직자로서 음악예술적론리와 감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고 속도와 자세, 음감과 지휘도식이 매우 정확한 특기, 더우기 왼손의 자유롭고 재치있는 손세는 그만큼 가지고있는 장기였다.

그는 수많은 교향곡들과 세계명곡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천리마시대의 교향악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우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20대에서의 음악대학 편입학위과에서의 유학기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전련맹지휘자공클에서 1등을 함으로써 온 유럽을 흥분시켰다.

전후 조국으로 돌아온 허재복은 국립교향악단 지휘자

절세위인들께서는 허재복에게 만수내예술단 수석지휘자 겸 단장이라는 크나큰 믿음 안겨주시었다.

그는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비롯한 새로운 수많은 음악작품창조사업에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은 유능한 지휘자, 관록있는 일꾼이었다.

그는 외국공연 때마다 고도의 섬세성과 품만한 정서를 자아내는 매력적인 지휘로 관람자들의 넋을 취시켜 놓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의 지휘동작을 찍는 기자들의 사진기 썰방과 샤타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당시의 지휘춤씨는 참으로 신비하다. 그 열손가락에서 모두 음악이 울려나오는것만 같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자라난 허재복은 오늘날 사람들의 추억속에 영생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간다

새 세계 교육혁명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공화국의 교육단위들에서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서성구역 중신고급중학교에서는 교육과 실천을 밀착시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공간을 현대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나가고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려면 책상에서가 아니라 부단히 현실에 접근시킬 때 웅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실험실습교육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는 데 보다 큰 힘을 넣고있다.

학교에서는 자연기초과 학실습실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는것과 함께 다양한 실험실습실들을

꾸려놓고 수업시간뿐 아니라 과외시간에도 널리 이용하고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자기의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에 따라 한가지이상의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하고있다.

평천구역 봉학소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교수방법과 수단들을 적극 창조 도입하고있다.

학교에서는 지식전수의 틀에서 벗어나 교수구조를 문제설정단계, 문제해결단계, 종합결론단계, 응용실천단계, 과제제시단계로 새롭게 설정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을 창조형, 실천형인재들로 키우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본사기자

어린이영양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 마련

공화국의 의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것을 중점으로 틀어쥐고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적극화하고있다.

이곳 연구자들은 불같은 사색과 창조의 열정을 기울여 《어린이영양관리안내지도서》를 락아소와 유치원, 산부인과 및 호당당의사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보건의료군들과 보육일군들이 나이에 따르는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성장발육

특성과 그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출생후 여섯달부터 17살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발육속도를 평가하고 영양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기초자료들을 구축하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가자료통신망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해당한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체계를 세워놓아 보육일군뿐 아니라 어린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한 지식을 널리 보급할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였다.

이곳 연구자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안아오기 위해 분발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 농사군은 굶어죽어도 씨오쟁이를 빼고 죽는다 —
농민은 죽는한이 있더라도 종자만은 꼭 보관한다는 뜻으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서 종자를 잘 보관하는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르는 말.

※ 씨오쟁이 — 여러가지 씨앗을 담아두는 짚으로 엮어 만든 작은 그릇.

— 농사물정 안다니까 표는 나락 해기 뻔다 —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농사물정을 좀 안다고 추어주니까 한창 때는 벼이삭을 뽑는다는 뜻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이 추어주는 바람에 더 엉뚱한것을 하여 무식함을 스스로 폭로한다는 말.

—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바빠 뿜다 —
농사철에는 일손이 모자라고 모두가 몹시 바쁘다는것을 과장하여 이르는 말.

단편소설 관성 (3)

유강산이 13살 나던 해 태평전쟁을 치르고있던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볼러드는 연합군에 밀려 과달카날섬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였다.

아시아의 《맹주》라던 일본군의 《육쇄》소식이 련이어 날아들었다. 다음해에 일본은 마리아나해에서 참예하였으며 난공불락이라고 떠들던 사이판섬도 들내는 함락당하였다.

패전의 기운은 점점 더 짙어갔다. 그해 겨울부터는 사이판섬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들이 일본본토에 폭탄을 마구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죽기 전박막이 제일 신히한 법이라고 왜왕의 승배자들은 그야말로 미친것처럼 기광을 부렸다. 지주집 소년머슴이었던 어린 유강산이 영문도 모르고 정웅에 끌려간게 바로 그해 겨울이었다.

왜놈경찰들은 주운 작성기를 지게에 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유강산을 띄여보고는 주재소 투지장으로 다짜고짜 끌여갔으며 다음날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부산행 기차에 홀짝 올려태우는것이

였다.

기차에는 이미 많은 조선사람들이 끌려와있었는데 그들중에는 유강산처럼 10대의 소년들도 더러 보였다. 그들모두는 칼을 찬 손자들의 물결없는 감시를 받고 있었다.

팔자에 없는 《죄인》이 되어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부산까지 강제압송된 그들은 다시 항에 집결된 수많은 조선사람들과 함께 판부련락선을 타고 시모노세끼로 끌려가게 되었다.

당시 놀들에 의해 짐짝처럼 선창에 처박힌 조선사람들은 끌려온 후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다가 파도가 심하여 모두가 게우고 실사하고 쓰러지다보니 선창안은 그야말로 짐승우리를 방불케 하였다.

끝내 몇사람이 몸부림을 치다가 정신을 잃었으며 그렇게 되자 왜놈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날마다 던져버렸다.

시모노세끼에서 수백명당위로 다시 편성된 정웅자집단에 끼여 유강산은 다시 나가

감독놈은 그들을 가리키며 또다시 뭐라고 왜색 고아대었다. 도주하려 했기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는것 같았다.

갑자기 놀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악귀같은 감독놈들은 그 두사람의 옷을 벌거벗기더니 바둑을 비꼬며머려 전주대에 거꾸로 매달고는 끝을 뽀족하게 깎은 참대창으로 그들의 배꼽을 폭폭 찌르는것이였다.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루 16~18시간, 지어 어떤 날에는 20시간씩 강요되는 중로동에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혹사병이라도 만났것처럼 무리로 죽어나갔다.

짐승사료로도 쓰지 못할 곰팡이가 낀 콩깨묵에 섞은 보리쌀을 섞어 만든 한덩이의 밤에 절인 무우 두세 조각과 밀진 소금국이 그들의 한끼 식사량의 전부였다.

왜놈들은 그것을 돼지먹이로도 쓰지 않았다. 돼지들한테도 쓰지 않았다.

하루 16~18시간, 지어 어떤 날에는 20시간씩 강요되는 중로동에 몸이 허약하고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혹사병이라도 만났것처럼 무리로 죽어나갔다.

짐승사료로도 쓰지 못할 곰팡이가 낀 콩깨묵에 섞은 보리쌀을 섞어 만든 한덩이의 밤에 절인 무우 두세 조각과 밀진 소금국이 그들의 한끼 식사량의 전부였다.

왜놈들은 그것을 돼지먹이로도 쓰지 않았다. 돼지들한테도 쓰지 않았다.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한갓 소모품같은것으로밖에 취급되지 않았던 정웅자들은 해골처럼 되어버린 몸으로 매일 수십메터의 땅속에서 땀을 캐어 날려야만 하였다.

놀들에게는 인정사정이 꼬물만큼 없었다. 동상을 입어 통통 부은 맨발로 힘에 버거운 탄차를 밀다가 찌르는듯한 아픔을 참느라고 잠깐 서있을라치면 즉시에 달려와서 어린 유강산의 발등을 곡괭이자로로 쿵쿵 내리찍었다.

《아픈가, 아프다는것은 아직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이고 신경이 살아있다는것은 아직 일을 할수 있다는것이다. 퍼쩍이나 하지 말고 빨리빨리 일하라.》

그다음은 영낙없이 왜놈감독의 사정없는 매질이 시작되곤 하였다.

놀들은 유강산을 비롯한 정웅에 끌려온 조선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벌레처럼 여겨이며 《생징》은 오직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저들의 눈에 거슬러면 그 자리에서 때려죽이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은몸이 쪼그라드는 지옥같은 곳에서는 왜놈들에 의해 강요당한 2년간의 중로동으로 유강산은 신경쇠약에 폐염을 앓았으며 10대에 경추가 휘어졌고 락반에 치여 척추가 부러졌다. 하여 그는 일생을 불구로 고통받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

경치, 품치

공통뜻: 자연의 모습. 개별뜻: 경치-눈에 바라보이는 자연이나 지리적환경의 풍경, 모양을 이루는 말이다. 보통 경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 품치-격에 어울리는 멋 또는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경치를 이르는 말이다. 보통 품치가 《있다》, 《없다》라고 한다.

본사기자

눈의 충혈을 완화시킬수 있는 손안마

눈의 충혈은 일반적으로 수면부족, 정신적긴장, 피로 등에 의해 생긴다. 이때 손에 있는 혈을 자극하는것도 눈의 충혈을 완화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손바닥의 함곡, 상양, 소택, 대통, 로궁 등의 혈을 자극할수 있다. 함곡은 손을 펴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벌릴 때 뼈가 갈라진 오목한 곳이다. 상양은 둘째손가락의 요골

족 손뽀뽀소리에서 약간 내려와있으며 소택은 새끼손가락손톱의 바깥쪽 뒤모서리에 있다. 대통은 손바닥쪽의 손목근에서 가운데에 해당되는 곳이며 로궁은 손을 가볍게 쥘 때 넷째손가락끝이 가닿는 곳에 있다. 해당한 혈들을 한번에 2~3분씩 자극하면서 손을 안마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관찰사가 되고싶어서

어떤 량방이 서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입속으로 외우며 다녔다.

하루는 그와 친하게 지내는 한 고을원이 그가 자는 방의 창문앞에 와서 관찰사의 이름을 취입없이 외워대고있었다. 그 소리에 깨어난 관찰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내 이름을 외우고있는것이냐?》

그러자 고을원이 이렇게 말하였다.

《관찰사께서는 부처님이 되어불가 해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것이 아닙니까? 나는 관찰사가 되어불가 하고 이름을 외우는것입니다.》